

〈제 683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금융감독원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1위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2021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형그룹에서 1위에 선정됐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계량·비계량 정보를 종합 평가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경우 3년 이상의 대출 및 지분투자, 경영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규모에 따라 대형, 중소형으로 분류해 관계형금융 취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중소형 그룹에서 광주은행을 1위로 선정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대출신청에 적극 반영하고, 고객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업무협약 체결과 금융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

◆ '포트란e' 유럽 라벨링 '트리플 A등급' 달성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상용차량(LCV)용 제품 '포트란e'에 유럽 라벨링 트리플 A등급 개발을 성공했다.

최근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이상 감축하는 기후법과 소국경조정제도 및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향후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핏포55(Fit for 55) 법안 추진을 발효함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이러한 유럽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 기존의 '포트란 KC53' 대비 28%의 구름저항감소를 달성해 100km 주행 시 0.4ℓ의 연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 저감해 연비에 해당되는 구름저항, 젖은 노면 성능, 소음성능에서 모두 최상 등급인 'A'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 '윈도우핏' 출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2022년형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핏(Window Fit)'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설치 환경 제약 없이 방방마다 개별 냉방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보인 윈도우핏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설계돼 이동이나 설치가 편리하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간단하게 분리해 보관할 수 있으며, 창문 일체형 설치

프레임을 적용해 보다 간편한 설치와 뛰어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2022년형 윈도우핏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며, 제품에 적용된 디지털 인버터 모터와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는 '평생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 받을 수 있다.

오텍캐리어

◆ 오텍그룹 '음압특수구급차' 특수기술 재조명



오텍그룹에서 개발한 음압특수구급차에 오텍의 구급차 특장 기술과 자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의 공조기술 적용된 특수 기술이 재조명받고 있다.

오텍의 음압특수구급차는 운전석과 환자실 간 공기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환자실 내부압을 대기압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유럽 등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며 음압 단계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 특히 2022년형 음압구급차는 보다 다양한 용도의 운용을 위해 감염병 환자 이송 시에는 일반적으로 권장 음압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환자 이송 시에는 오텍에서 별도 개발한 'S-Ventil' 시스템을 이용해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제작됐다.

오텍의 신기술을 활용한 빌트인 형식의 'S-Ventil' 시스템을 통해 환자실 내 산소농도, 공기 내 바이러스 소독, 공조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음압구급차보다 활용도와 기능을 한층 높였다.

해양에너지

◆ 광주대 발전기금 기탁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가 지난 16일 우수 인재 양성과 신재생에너지 연구 지원을 위해 광주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학교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열린 기탁식 행사에는 김혁중 광주대 총장과 김형순 해양에너지 사장, 김황용 광주대 기획처장, 오광호 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 및 기술 자문 등 산학협력 활성화 ▲광주대 재학생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 실습 지원 ▲우수 학생 우선 취업 지원 ▲전문가 특강 및 맞춤형 실무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하남산단 외국인노동자 지원 강화 협력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이 수탁 운영 중인 하남혁신지원센터가 지난 19일 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하남산업단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하남산단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겪는 고충 등을 해결·지원하기 위한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남산단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사업 공동 운영 ▲만족도 높은 생활 영위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협력 ▲하남산단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정보 교류 등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 '광주형 일자리' 컨설팅 참여기업 20개사 선정



광주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동찬)은 광주형 일자리 기업 컨설팅에 참여할 20개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컨설팅은 관내 기업 중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적정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준수, 상생형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20개사에는 5회 무료 컨설팅과 함께 노무, 법무 등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 지원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증 취득 자격기준에 대해 자문하고 도입 설계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 첨단산단 '스마트 안전·편의 인프라 확대' 구축 가속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사업단은 최근 광주광역시·(주)케이티와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차 연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년의 사업 기간 중 지난해 1차 연도 사업에 이어 2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인프라를 인공지능(AI)과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로 개선해 산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출·퇴근 생활 편의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전담기관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주관기관인 광주시는 지방비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관인 (주)케이티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54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유경철(소통과공감 대표) 주제: 변화관리 리더십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5월2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유경철 소통과공감 대표를 초청 <변화관리 리더십>이란 주제로 제155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변화관리란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어떤 대상이 변하려 해도 주변 환경도 함께 변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3선으로 1단계는 先見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민하게 느끼고, 그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는 것이다. 2단계는 先制로 아무리 변화의 흐름을 빨리 느끼고 읽는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3단계는 先占으로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해 주는 이점이 있다.

반면 변화를 망치는 7가지 잘못된 믿음은 1.위기는 사람들을 쉽게 변화시킨다. 2.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3.침묵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4.사람들은 이성과 논리에 의해 변화한다. 5.변화는 이벤트가 중요하다. 6.조직변화는 관리자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좌우한다. 7.조직변화는 선형의 과정이다.

변화에 저항하는 6가지 이유로는 1.신뢰의 부족 2.변화가 불필요하다는 신념 3.변화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 4.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위협 5.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6.간섭에 대한 분노다.

개인이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7단계는 당연한 상황에 (충격)을 받는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 증거를 탐색(부정)한다. 상황변화를 인식하면서도 분노함(좌절)한다. 기분이 가라앉고 기력이 달린다(우울). 새로운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실험). 상황을 익히며 긍정적으로 느낌(결정),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 거듭남(통합) 순이다.

변화란 사물의 모양, 성질, 상태 등을 바람직한 상태로 계획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1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8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16회 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31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중장년센터 제1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9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1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6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5.16 ~ 5.20)

5.1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고용지표 분석 자문회의 ● 청년일경험드림 네트워킹모듬활동 ● 경진원 취업지원네트워크협의회 간담회 	5.1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센터 제1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5.1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포럼 ● 중장년센터 제1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5.2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54회 금요조찬포럼 ● 광주시 시민의 날 행사

1. 노사 동향

■ 고용부 장관은 취임 인사차 경총과 한국노총을 방문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 17 경총을 내방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 진행
 -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대체근로 허용 등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사와 자주 소통하겠다고 발언
- 한편, 이정식 장관은 5. 16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 진행
 -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시도가 우려된다는 입장 전달
 - 이정식 장관은 일자리,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총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

■ 한국노총은 새 정부에 대응활동 주력

- 한국노총은 5. 16「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과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
 - ※ 한국노총은 2. 23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대통령 선거 이후 사업계획을 수정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에 대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며,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현장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금속노련 등은 고용의 임금인상과 조직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어 노사관계 불안 우려
 - ※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에서 총액기준 6.1% 인상을 요구 (2021년 타결 임금인상률 : 2.4%)
 - ※ 금속노련은 2022년 사업목표로 '중대재해 긴급대응팀'을 신설을 통한 개별 사업장 중대재해 조직적 대응, 지역별 조직화 대 사업 강화 등을 선정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는 요구사항 이슈화 주력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2차 전원회의를 개최 (5. 17)
 - 경영계는 ▲최저임금 안정 및 현실화, ▲지급여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
 - 노동계는 ▲물가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논의를 통해 6월 중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 개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 17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근로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생,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
 - 민주노총은 2차 전원회의 개최 전 세종시 고용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까지 투쟁 지속,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 폐기, ▲유택근 수석 부위원장 석방 등을 주장

2. 법제 동향

■ 정경희 의원(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11)

- (발의 이유)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노위 법안심사(5.4)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될 예정. 이에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교원단체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

■ 안호영 의원(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12)

- (발의 이유) 현행법(퇴직급여법 제8조)은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시. 다만, 사업장 도산 등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사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
 -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를 명시한 동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20년 7월), 법안심사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의무화 조항 삭제

■ 이수진 의원(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16)

- (발의 이유) 현행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화 적용 문제는 법 제정 이후 한 차례만 시행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의견 제기
 - ※ 노동계는 5. 17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조항의 삭제를 요구
- (주요 내용) 최저임금 사업별 차등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